

LG디스플레이, LCD 판매량 최대

모니터용 패널 판매량 월 400만대 돌파 ... 투자 강행에 신제품 효과

LG디스플레이의 모니터용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판매량이 월 400만대를 넘어섰다.

LG디스플레이는 7월의 모니터용 LCD 패널 판매량이 전년동월대비 75% 가량 증가한 420만대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에 300만대 판매를 돌파한데 이어 4개월 만에 400만대 판매고를 달성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4월 준공한 6세대 라인(P6E)의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LED(Light Emitting Diode) 백라이트와 광시야각(IPS)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한 것이 판매 호조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2008년부터 해외 영업조직을 확충하고 초기 채산성이 낮은 제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양산해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에 필요한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세계 모니터 시장이 2009년 1억5842만대에서 2011년 1억7686만대, 2013년에는 2억411만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6>